

제8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목	2017학년도 8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일시	2017.02.10.(금) 14:00-16:30
		장소	K동 206호
안 건	1. 2017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안) 논의		
주요내용	<p>[개회 선언]</p> <p>- 위원장 : 총 인원 9명 전원 참석하였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p> <p>[서울캠퍼스 합의안]</p> <p>- 위원장 : 학생대표들의 최종 요구안을 전달받았음. 금일 회의에서 학생대표들이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학교위원들이 답변한 후, 차기 회의 일정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함. 9차와 10차 회의에서 합의안을 정리하고 11차 회의는 세종캠퍼스에서 최종 합의하는 일정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물음.</p> <p>- (서울)총학생회장 : ①학생대표 요구안에 대한 학교의 답변을 2회에 걸쳐 받았는데, 학교의 공식답변도 회의록에 적시되어야 한다고 함. 또한, 합의안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의의 마지막 단계라고 함. ②다음과 같이 학교 답변에 대한 학생대표의 의견을 밝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액, 즉시, 모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학교답변에 대해 건물신축 또는 토지매입 관련은 '전액'이라는 표현이 적시되는 것이 옳다고 함. 기존건물 리모델링에 대해 양보를 했기 때문에, 건축목적으로 적립된 적립금이 온전히 인출되어야 한다고 함. '전액'이라는 단어는 송달료 등 적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지만, 건물신축 및 매입의 핵심 금액은 포함되어 있다고 함. 2. 'R동과 T동에 흡연부스를 즉시 설치한다'에서 '즉시'라는 부분은 삭제하더라도, '2017학년도 1학기 중'으로 대체되어 기재되어야 한다고 함. 3. 단과대학 특성에 따른 24시간 개방 안건은 작년 합의문과 동일하게 2017학년도 합의안에 적시되어야 한다고 함. 4. 교직원 확충 요청 건은 법인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은 일부 이해하지만, '컨설팅 결과에 대해 알려준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정제된 자료'를 받을 수 있기에 '학생위원들과 공유한다'라고 적시되어야 한다고 함. 5. R동 1층, 13층, 15층은 '배정'이 아닌, '개방'을 함으로서 모든 학과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함. 6. D동 지하3~5층을 동아리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은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학생대표 요구안 그대로 적시되어야 한다고 함. 		

7. '제2기숙사 2층공간을 학업공간으로 제공한다'라는 안건은 '디자인밸리를 시행하기 전' 이라는 것을 회의록에 명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학업공간을 제공 및 작년 합의문의 열람실증설 부분을 이행하면서 열람실증설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자고 함.
8. 기숙사 지하2층 공간의 면적을 직접 측량 하고 T동 4층열람실과 비교해본 결과, 총 기숙사생 10%의 열람실 좌석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함.
9. 제 3기숙사 관련 '기숙사비 등'이라는 표현에 대하여는, 제 2기숙사에 대한 작년 등심위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사비 등'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함.
10. 대학로 아트센터 전시공간 무료활용은 학생들이 학업목적 이용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실무위에서 그 이용에 관한 신청절차를 만들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하면 될 것이라 함
11. '대학원과 외국인 등록금의 기초는 학부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함.
12. 교육환경개선은 학생들에게 중요하기에, 회의록에 자세히 적시하면 좋겠다고 함.
13. 본교 학부 출신 대학원생에게 지급예정인 장학금은 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지급하면 좋겠다고 함.

- **위원장** : 대학원 등록금 문제는 등심위에서 처리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동의할 수 없고, 예결산에 대학원이 포함되어 있기에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다고 함. 뿐만 아니라 홍익대학교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함.

- **위원장** : 등심위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대학원생들은 통보 받아야 한다고 들리는데, 맞는지 질의 함. 또한, 인상한다는 의미인지 질의 함.

- **위원장** : 대학원 등록금은 확인해서 알려준다고 함.

- **학생처장** : 등록금은 타학교 동향도 조사해서 반영한다고 함.

- **사무처장** : 대학원의 등록금은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만큼 책정되는 것이고, 학부생의 등록금과 구분해서 별개로 관리하는 것은 아님.

- **(서울)총학생회장** : 등심위가 처음 개최되었을 때부터 계속 말한 것처럼, 매년 등심위에서 항상 이 시기쯤 되면 대학원 등록금을 올린다는 얘기를

학교위원들이 말해서 올해는 '대학원과 외국인 등록금의 기초는 학부와 함께 한다' 라는 점을 몇 차례 밝혔다고 함. 갑자기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인지 질의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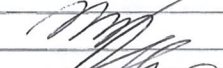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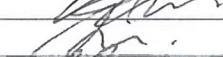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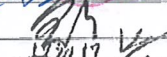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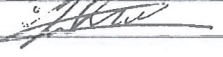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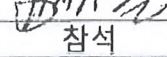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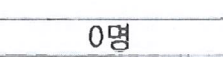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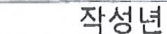
- **위원장** : 대학원에서 답변을 물어보고 답변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왜 대학원의 등록금이 동결, 인상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뿐 만 아니라 회의록에 적시되어야 한다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대학원은 등록금에 대하여 그저 통보를 받아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학교측의 취지가 이것이 맞는지 불만을 표 함.
- **사무처장** : 대학원 입시가 먼저 시작하기에, 가고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함.
- **학생처장** : 대학원은 등록금 책정은 보통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그 등록금 인상폭을 보면 우리가 항상 중간을 유지해야 한다하는 틀이 있었음.
- **(서울)총학생회장** : 그 의미는 인상요인에 대해 정확히 책정을 하는게 아니라 '주변 대학이 인상을 하니까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지 질 의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작년에도 가고지를 인상하여 진행해서, 학생위원들이 반발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질의 함. 대학원 등록금 관련 3번 이상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 었다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원의 등록금의 인하, 동 결, 인상을 결정 할 권리가 없는 것인지 질의 함.
- **학생처장** : 없다고 대답 함. 대학원은 대학원 학생회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학생회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작년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학생위원 5명, 학교위원 5 명으로 하자고 했지만, 학교에서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함. 따라서 학교가 거절함에 따라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심의를 위한 창구를 막은 것 이라 함
- **학생처장** : 그때 당시 대학원 학생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p>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총학생회장 :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기에 대학원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학부, 대학원, 외국인은 같은 기조로 한다고 몇차례 얘기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만약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함. 등록금수입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대학원 등록금 수입이기에 이 자리에서 심의 할 사항이라고 함. - 사무처장 : 작년에 대학원 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해, 이번 해에 함께 논의 하자는 요구가 있었으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할 수 없었다고 함. '대학원 등록금이 오르면 학부 등록금이 오른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같은 기조로 간다고 말했다고 함. - 학생처장 : 대학원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학부 안건과 섞여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대학원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질의 함. - 위원장 : 대학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후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함. 외국인, 대학원, 학부는 같은 기조로 한다는 것을 동일한 사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음. - (서울)부총학생회장 : 학생위원들의 '대학원과 외국인 등록금의 기조는 학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학교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질의 함. - 위원장 : 외국인, 대학원과 별개로, 학부 등록금은 인상되지 않는다는 요구로 받아들였다고 대답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동일한 기조로 한다' 라는 의견이 어떻게 '별개'로 해석될 수 있는지 불만을 표하면서, 학교위원측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었다고 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처장 : 학부가 동결하면 대학원도 동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학부, 대학원, 외국인은 같은 기조로 간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되는지 질의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대학원 등록금은 올려도 된다는 것인지 질의 함. 대학원생들은 등록금을 논의 할 자리가 없다고 함. - 사무처장 : 외국인들도 학부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같은 수업을 듣는데 어떻게 다른지 질의 함. - 사무처장 : 외국인 학생에게는 다른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으므로 다를 수도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전에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논의가 진행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 함. 본인은 대학원 학생회에 대학원등록금 협의는 별도로 진행하라고 언급을 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함. - 학생처장 :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함. - 사무처장 : 대학원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가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학생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가고지를 했는지 질의 함. - 사무처장 : 대학원 신입생에게 가고지를 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가고지'는 원리원칙 상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함. 또한, 가고지가 되기 전에 협의가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함. - 위원장 : 1.5% 인상하는 내용의 가고지가 1월 25일에 이루어 졌다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결정도 안됐는데 왜 1.5% 인상된 등록금으로 가고지를 했는지 질의 함. 학부는 가고지 전에 동의를 구했는데 대학원은 왜
--	--

동기도 없이 가고지 했는지 불만을 표시 함.

- **위원장** : 같은 기조로 간다는 말은 '학부생 등록금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함.(교학처장도 같은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함.) 대학원 등록금은 등심위에서 논의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대학원생들은 본인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에 대하여 논의할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고, 그저 학교가 결정한 것에 따라야만 하는것이냐 불만을 표함
- **학생처장** : 이 자리에서 대학원 등록금을 논하려면, 등심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학생처장님 말처럼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함. 대학원 등록금 1.5% 인상 가고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대학원 총학생회가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고 함. 지금까지 합의한 사항은 무효이며 학생위원측 기존 요구사항이었던 등록금 8.25% 인하, 예금이자 인출 및 기존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주장도 계속하겠다고 함. 학생위원들은 이 입장에 대해 다음 주에 듣는 것으로 알고 있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고, 따라서 학생위원들은 퇴장한다고 함.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위원	위원장	황 병 돈		위원	장 상 희	
	위원	이 선 우		위원	이 수 환	
	위원	전 성 표		위원	조 민 우	
	위원	정 교 범		위원	유 재 호	
	위원	심 재 익				
참석현황	참석대상	9명	참석	9명	불참	0명
작성자	재무팀 간사 이승용	작성년월일		2017.02.13		